

민주, 정부여당 파상공세...민생고·與전대·檢수사 등

에너지 물가 지원 추정 협의 재촉구 “정작 다급 국민 삶엔 굶뜨고 느려” “자기 편 아니 여기면 누구든 말살”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등 민생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 검찰 수사 공정성 등 거론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심각한 고물가에 앞으로 공공요금 전반 인상이 예정됐는데, 정부는 국민 고통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270만 가구 난방비를 지원한다는데 90만 가구쯤 중복 지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자신들 정치적·치적으로 기만한 단점에서 이중의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또 한편으로 부자 감세를 해주고, 이런 것도 국민 고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 그 중에서도 특히 7.2조원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난방비 인상을 ‘진짜 폭탄’으로 평하면서 “최장기 고물가 행진

과 공공요금 폭등으로 국민 걱정이 태산인데, 정부여당은 너무나 한가하다”고 비판했다.

또 “당은 전방위처럼 윤심으로 장악하고 눈에 가시인 야당과 언론은 초고속 고발하면서 정작 다급한 국민 삶을 살피는 일엔 굶뎠고 달팽이보다 느리다”고 했다.

아울러 “준비 안 된 윤석열 정권 무책임을 국민이 짊어진다”며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탄 사태에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 제안에 대해 즉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교통요금 인상 문제를 짚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우선 답해야 한다. 책임 있게 나서 지자체, 국회,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연계한 대정부여당 성토도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힘 사당화엔 거침없다”며 “정무수석까지 국회로 보

내 자신을 도운 안철수 의원 공식 찍어내기에 발 벗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자기편이 아니라 여겨지면 누구든 적으로 규정해 말살하고 제거하는 데 주저 않는 윤 대통령의 실체를 온 국민이 탄식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 오직 통치,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만큼이라도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과거 새누리당 옥쇄 파동을 상기하면서 “상대 당이지만 그런 코미디를 또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여당이 망가지는 상황은 측근 권리를 잘못한 대통령 문제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당무 개입은 그만두고 국회 일은 국회, 정당 일은 정당에 맡기자”며 “개입할 시간에 난방비, 국가안보, 경제에 대한 공부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내 편이 아니면 여야 가리지 않고 찍어낸다”며 “본인이 속한 정당 내부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 수사와 연계한 대정부 비판 주장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을 계속 수사 중이란 변명을 늘어놓는다”며 “우려먹던 곰팡이 안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 “수사는 증거를 쫓아 진실을 찾는 것이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깁기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김건희 수사는 안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역술인 천공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에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않는데, 최소한 해명하려면 객관 증거라도 제시하라”고 했다.

또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처리하나”라며 “거짓 의혹에 결백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범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면, 물증 없이 계속되는 이 대표 수사야말로 범치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무조건 거짓말이다. 고발하겠다. 협박만 하면 아무도 대통령실을 신뢰 않을 것”이라며 “천공 청문회를 제안 드린다”고 언급했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與 ‘난방비 지원’ 현수막에 “90만 가구 중복...치적 기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지원 문제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 고통을 자신들 정치적·치적으로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와중에 고통을 치적으로”
“국민의힘, 尹정권은 비정한 정권”
“에너지 물가 추경 신속 협의하라”
“국민의힘이 270만 가구인가를 난방비 지원한다고 온 동네에 현수막을 붙이고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 90만 가구쯤이 중복 지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170만 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27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처럼 어려운 와중에도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자신들 정치·치적으로 기만한 단점에서 이중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비정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 고통을 도대체 언

제까지 방치할 생각인가”라며 “민주당은 어제 소속 지방 정부들과 난방비 폭탄 해결 방법을 강구했다”고도 했다.

또 “가급적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난방비 지원 논의를 해 달라. 특히 농어촌 지역은 경우, 등유 등을 많이 사용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 편성에서도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정 부족 이유를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 감세를 해주는 것도 보면 역시 국민 고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 그 중에서도 특히 7.2조원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주길 다시 당부한다”고 했다.

오유니기자

민주 “정보호 실종 선원들 무사귀환 기원”

“모든 자원 동원해 구조에 온힘 다 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신안 해역에서 전복된 정보호 실종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선 정보호가 전복되어 3분이 구조되었지만 9분이 실종 상태라고 한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사고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선원들이 무사 귀환하기만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실종된 9분의 선원이 꼭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며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놀라 초조하게 구조 소식만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에 온힘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 거듭 선원들이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